

'친구에서 연인으로'...손담비♥이규혁 3개월째 열애 중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2011년 예능에서 처음으로 인연 끌모임서 다시 만나 관계 발전

'우정 끝, 사랑 시작'
가수 겸 연기자 손담비(38)와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43)이 사랑을 쌓아가고 있다. 2일 손담비 소속사에 이치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로 알고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연인이 됐다.

손담비와 이규혁은 2011년 SBS 예능 프로그램 '키스앤크라이'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렇다할 친분 없이 지내다 올해 초 한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올해 봄 손담비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다. 이후 꾸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이날 연예계 한 관계자는 "이들이 골프라는 취미를 통해 더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서로 아껴주고 이

야기도 잘 통해 부러움을 받는 커플"이라고 말했다. 손담비는 2007년 가수로 데뷔해 '미쳤어', '토요일 밤에'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솔로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9년부터 연기로 활동 영역을 넓혀 드라마 '드림', '빛과 그림자' '동백꽃 필 무렵' 등에 출연해왔다. 현재는 iHQ 예능 '언니가 쓴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규혁은 1991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에 6회 출전했



손담비 이규혁
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다. iHQ 스피드 스케이팅팀 감독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X-MAS 시즌송의 계절

안테나 뮤직 '다음 겨울에도...' 인기 이무진·헤이즈는 듀엣 신곡 선보여

크리스마스 시즌송이 다시 울려 퍼진다. 케이팝 가수들과 합작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의 경연곡이 각종 음원차트를 점령한 가운데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와 따뜻한 감성의 시즌송이 잇따라 팬들의 마음을 적신다. 각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한 곡을 내놓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팍팍해진 팬들의 마음을 위로할 기세다.

가장 먼저 겨울과 성탄 분위기로 취감은 노래는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이다. 이른바 '믿고 듣는' 아티스트들이 모여 있는 안테나 뮤직 소속 가수들이 입을 맞춰 부른 곡이다. 안테나의 '수장' 유희열을 비롯해 정재형, 루시드폴, 페퍼톤스, 샘김, 이진아, 권진아, 정승환, 서동환, 적재에 이어 최근 합류한 방송인 유재석과 이미주 등 15명이 합작했다. 이에 힘입어 2일 오후 3시 기준 빅스를 비롯해 주요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테나 측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음악과 개성 있는 색깔을 드러내는 가수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의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겨울의 우리들'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안테나 표' 캐럴로, 프로듀서 서동환이 작곡과 편곡, 싱어송라이터 권진아가 작사해 따뜻하고 포근한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밀리언셀러' 대열에 합류한 대세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스페셜 싱글 형태로 '크리스마스 이블'(Christmas Eve)을 발표했다. 이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곡은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크리스마스이브'에 알파벳 'L'을 더해 제목을 붙였다.

가수 이무진과 헤이즈는 듀엣으로 신곡 '눈이 오잖아'를 3일 내놓는다. 이무진이 직접 작사·작곡한 '눈이 오잖아'에 헤이즈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이 각기 음원강자로 힘을 발휘해온 만큼 시너지도 클 것으로 보인다.

'듀오의 힘'으로는 다비치를 당할 자가 없다. 이들은 6일 싱글 '매일 크리스마스'를 발표한다. 다비치가 데뷔 이후 처음 선보이는 캐럴로, '아이 워시'(I wish) 등을 수록했다. 멤버 이해리와 강민경은 특유의 보컬로 겨울시즌을 따뜻하게 채울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송혜교 악플 대응 왜 안해" "송지효 스타일링 개선 촉구"...

팬덤의 스타 향한 애정 고맙지만...

"팬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만 한쪽 입장만 반영하기 어려워" 소속사들 현실적 어려움 호소

최근 연기자 송혜교의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소속사에 항의했다. 12일부터 방송 중인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로 복귀한 송혜교를 공격하는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팬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소속사에 요구했다. 이어 소속사 UAA 관계자와 만나거나 사무실에 전화해 항의하고, 의견을 담은 서면 항의서를 보내자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을 직접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명 '총공(팬들의 단체행동)'이 시작된 셈이다.

● "스타 콘셉트에 맞는 스타일링을!"

그룹 빅뱅의 팬들도 11월29일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서울 합정동 사옥 앞에서 트럭시위를 벌이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속사 4인조 빅뱅을 서포트하고 팬덤을 관리하라"면서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인 루머와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 ▲2019년 3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은퇴한 승리의 '흔적 삭제' 등 4인 체제로서 빅뱅의 향후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11월 말 연기자 송지효의 팬들은 그의 헤어스타일 변화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송지효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에 성명서를 보냈다. 송지효가 최근 숏컷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꾼 뒤 온라인상 '갑툭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팬들은 '송지효 스타일링(코디·헤어·메이크업)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



명서 "지난해부터 송지효의 스타일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포털에 자주 오르내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타일링이 아쉬운 연예인으로 매번 송지효가 거론되는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담당 스타프의 교체와 스타의 콘셉트에 맞는 스타일링을 요구했다. 앞서 10월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던 연기자 김선호에 대해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팬들의 애정 감사" 현실적 난감함

팬들의 요구는 대체로 매니지먼트사의 더 적극적인 '스타 보호·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스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막고, 대중적 호감도를 더욱 높여 자신들도 '문화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자'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스타의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어 당당하게 스타와 공감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각 매니지먼트사는 반가움 속에서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팬들의 스타에 대한 애정은 넘칠 만큼 고마운 일이다"면서 "팬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팬들의 요구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스타의 연기자 스타일링 등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늘 앓자마자 마린 아닌가"라 되묻고 "위법행위 등 지나치게 스타를 공격하는 것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매니지먼트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문제

6			4					1
8	5	1	9					2
		1	5	6				
	8		4		7		5	
	9						2	
	1		2		9		6	
		8	7		2			
1	2	9	7				6	
9			2					5

■ 스토쿠정답

9	1	7	9	2	8	1	2	9	6
9	8	2	7	6	8	2	9	1	5
8	6	2	9	1	5	8	9	7	
7	9	8	6	8	7	1	9		
7	2	8	1	8	9	9	6	7	
6	9	1	7	9	1	8	2		
8	2	9	2	9	6	1	7	8	
8	2	9	2	9	6	1	7	8	
1	2	9	7				6		
6	9	8	7	1	6	2	9		

■ 낱말문제

1	2	3	4	나
14	15	16		
13			다	
12		19	18	
가	11	10	9	8

■ 열쇠

01.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좌오'. 02.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03.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 04. 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05.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06. 암술이 같은 그루 안의 꽃으로부터 화분을 받는 일. 07. 정수리를 쇠망치로 두들긴다는 뜻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깨우침을 이르는 말. 08. 가을 이슬을 받은 물. 09. 옛 제도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당파. 10.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11. 아주 자신이 있음. 12.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13. 이미 시작하여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을 이르는 말. "오장지오" 14.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5. 처녀가 나이로 보아 시집가기에 알맞은 때. "오시오" 16.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17. 사람이 세상 살이에서 받는 고통. 18. 피리와 북으로 짜인 의식 및 행진용 음악대.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다칸을 이어놓으면 가요 제목이 됩니다.

은	축	평	숙	산	희	IV	IX	IV
공								
공	간	관	관	관	관			
수	관							
IC	IC		을	관	관			
IX	IX							
공	관	IV	관	IV	관	IV		
IC								
은	HQ	IV	관	IV	관	IV	관	IV

연예뉴스 HOT 4

올해 한국 유튜브 최다뷰 영상은 아이유 라이브



아이유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본 영상은 가수 아이유의 히트곡 라이브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유튜브가 발표한 국내 동영상·뮤직비디오 연간 결산 순위에 따르면 3월31일 디고뮤직 채널이 게재한 아이유의 히트곡 라이브 영상 '아이유의 칼링 보이스를 라이브로!'가 3300만회 넘는 누적 조회수로 1위에 올랐다. 올해 국내 유튜브 사용자가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보훈문화상 수상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제22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유 퀴즈 온 더 블럭' 측에 상을 주었다. 프로그램은 애국지사 후손, 6·25 참전용사 관련 인물을 소개하고, 소방관과 경찰관의 노고를 조명하는 등 보훈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YG엔터, 소속 가수들 앨범 친환경 소재 제작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YG)가 소속 가수들의 앨범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다. 2일 YG는 "7일 선보이는 송민호의 솔로 정규 3집 '투 인피티니' 앨범 인쇄물을 FSC(산림관리협회) 인증 용지와 저염소 표백펄프로 만든 저탄소 용지 등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별도의 구동 기기 없이 본체에 이어폰만 꽂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에어 키트(Air Kit) 앨범에도 생분해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YG는 "앞으로도 친환경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적, 청각 장애 청소년들과 콘서트 개최



이적

가수 이적이 청각 장애 청소년들과 콘서트를 연다. 청각장애 유소년 클라리넷 앙상블 '사랑의달팽이' 측은 "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 영신아트홀에서 여는 제16회 정기 연주회에 이적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적은 '사랑의달팽이' 홍보대사로, 이들과 협연해 노래 '다행이다' '격정말아요 그대' 등을 부른다. 2003년 창단한 '사랑의달팽이'는 세계 최초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이다. 이날 연주는 차미연 MBC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